

별 헤는 밤

季節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색여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來日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靑春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追憶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憧憬과
별 하나에 詩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小學校 때 冊床을 같이 했던 아이
들의 일흔과, 佩、鏡、玉 이런 異國少女들의 일
흔과 별서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일흔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일흔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랑시쓰 · 잠」 「라이넬 ·
마리아 · 릴케」 이런 詩人의 일흔을 불러보니
다.

별 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靑春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
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소녀들의 이름과 별
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
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 잠」 「라이너 · 마리아 · 릴
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北間島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우에

내 일흠자를 써보고,

흠으로 덮혀 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버레는

부끄러운 일흠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一九四一、十一、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일흠자 묻힌 언덕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 할게외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흠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1941.11.5